

# 與, 정년연장 공론화 급물살 “청년고용 위축” 온도차 여전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 출범  
고령층 소득공백 해소 ‘명분’  
기업·청년 고용부담 가능성  
노사 합의·사회적 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르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존에 운영되던 민주당 정년연장TF(태스크포스)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국회에서 제1차 본위원회의를 열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며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그것이다. 정년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미루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다.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민주당은 60살인 정년을 2029년까지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에 65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올해 말 법안 성안과 본회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과를 목표로 노측과 사측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것이 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경영계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사측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제로 개편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청년 실업률이 5개월째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정년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고령자의 소득이나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그동안 노인 빈곤, 저출생, 청년 고용, 국민연금 수급 연령,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서로 간에 이야기들이 있었고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자리는 있었다”며 “다만, 이 부분이 이후의 대안으로서 발전해 나가고 안을 만들어 내 갈지가 지금 미정인 상태인데, 특위에서 이 부분이 속도감있게 국민과 노동자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정년연장TF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노동계 위원과 경영계 위원이 참여한 본위원회의 후 기자회견과 만나 “경영계에서 다시 또 원점으로 (논의를)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연 수출 7000억 달러 청신호

반도체 호조에 관세협상 타결까지  
연말 성수기 수출 증가 효과 겹쳐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정부가 연초 제시한 연간 7000억달러 수출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수출 회복 기대감이 커진데다, 연말 성수기 수출 증가 효과가 겹치며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59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은 29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793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0억7000만달러)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남은 11~12월 두 달간 1206억5000만달러를 추가하면 7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10월의 일평균 수출이 11월(596억달러), 12월(655억6000만달러)에도 이어지면 총 1251억6000만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과 12월 수출액은 각각 563억5000만달러, 613억8000만달러였으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40% 증가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5~13% 수준 감소했었다. 2024년 연간 수출액은 6838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8.2% 증가했었다.

올해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반도체의 경우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코스피가 전 거래일(4107.50)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마감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장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11만전자’·‘60만닉스’ 터치 AI 열풍에 반도체株 불기둥

반도체 ‘투톱’ 모두 사상 최고가  
코스피 사상 최고 4220선 돌파

‘국민주’ 삼성전자가 3일 11만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증시를 이끄는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으로 ‘60만닉스’(주가 60만원) 고지에 올랐다. 두 반도체 기업은 코스피를 사상 처음으로 4220선에 올려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장보다 3600원(3.35%) 오른 11만11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만1000원(10.91%) 오른 62만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투톱’ 모두 사상 최고가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시가총액은 각각 657조6718억원과 70조8266억원으로 불어났다. SK하이닉스 시가총

액은 451조3614억원이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179조8598억원으로, 1200조원에 달한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시장참여자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주목한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삼성전자가 필요하고, SK하이닉스도 필요하다”며 협력을 강조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 4개 기업에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스마트가전 10년 투자, ‘생활형 AI’로 진화

국내 가전업계, AI 생태계 확장  
CES서 ‘스마트홈 2.0’ 비전 공개

국내 가전업계가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내며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스마트가전’ 기술 투자의 결실을 맺고 있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생활형 AI 시장 공략을 위한 기술을 내년 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CES)에서 대거 선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전기업들은 생활 가전에 AI 연산용 칩과 고성능 MCU를 적용하는 등 구조적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에 ‘AI 비전 인식아이드’를 적용해 내부 식재료를 자동 인식하고, LG전자는 ‘AI 홈(AI Home)’ 기능을 통해 생활패턴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있다. 기존 클라우드(서버) 기반 제어 방식에 의존하던 구조가 온디바이스(on-device) 연산으로 확장되며 처리 속도와 효율이 동시에 개선되는 추세다.

이 같은 기술 변화는 10여 년전 ‘스마트가전’ 단계에서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다. 2013년 삼성전자는 T9000 냉장고를 선보이며 음식보관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을 탑재했고, LG전자는 2014년 ‘홈

챗(HomeChat)’ 가전을 통해 네트워크와 센서를 활용한 맞춤형 제어를 시도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각각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LG 씽큐(ThinQ)’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전 간 연결·자동화 생태계를 구축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AI라는 명칭이 최근 불었듯, 생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기술은 이미 10년 전부터 발전해온 셈이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스마트·AI가전 기술은 내년 예정된 CES를 통해 한층 구체적으로 대중 앞에 공개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정희준 기자 nauta@



▲이 대통령,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임명  
▲조국 “내년 서울시장이든 국회의원 재보궐이든 당 필요한 곳 출마” /사진 뉴시스

▲민주 “국정안정법 추진하지 않기로… 대통령실 과도 조율”  
▲국힘 반도체특위 “관세협상 승자는 미국…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사활”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 예방 대책 회의… 자살 유발 콘텐츠 대응 방안 논의  
▲통일부 “북, 전략적 결단 내려 북미대화 기회 놓치지 않기를”